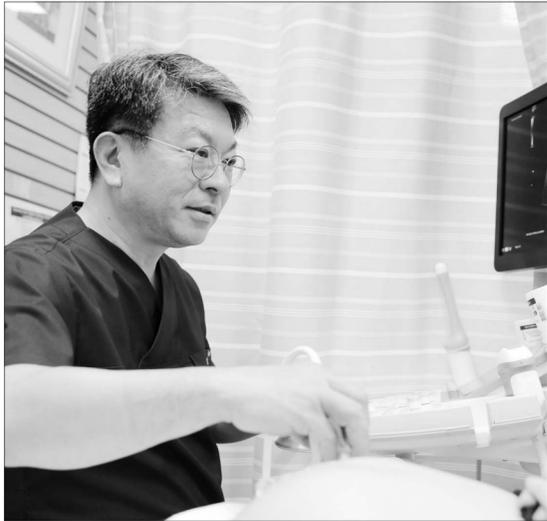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킨 김윤하 전남대병원 교수 정년퇴임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초음파 진료를 하는 모습.

33년간 분만실 불 밝혀...“아이들 성장 소식에 보람 느껴”

휴식 대신 로컬 현장서 진료 지속...후배들에 자긍심 강조

전남대학교병원 분만실의 불을 33년간 밝혀온 ‘거목’이 정년 퇴임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로, 지난 1993년 전남대병원에 첫발을 내디뎠던 청년 의사가 이제는 호남 지역 고위험 산모들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며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된 것이다.

김 교수의 33년은 대한민국 출산 지도가 변해온 고통스러운 기록이다.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분만실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산부인과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다. 섬마을이나 산간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오는 고위험 산모들도 많아 가슴이 아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많은 밤을 분만실에서 잠을 지새웠다

는 김 교수, 그럼에도 손바닥만 한 크기로 태어난 300g의 초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라 성인이 됐다는 등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산과(Obstetrics)는 의뢰인의 체력적·정신적 소모가 극심하고 의뢰자도 위험도 높아 전공의 기피 1순위로 꼽히지만, 김 교수는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이 나를 30년 넘게 이 자리에 묶어두었다”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필수 중증 의료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체감되는 저출산의 현실이 지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그는 “전공의 시절 한 달 분만 건수는

120건이었으나 지금은 60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한때 월 300건 이상 분만을 했던 인근 병원은 이제 일 년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초저출산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라는 사회적 화두 앞에 김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 국가를 향해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울산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뇌 손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이 16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료진에게 사명감을 부여하는 시대가 지났다”며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필수의료진이 법적·경제적 불안감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즉 ‘국가 책임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분만실 불은 영영 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후배의 사들에게 산부인과만의 독보적 가치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생명을 창조하고 받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한 만큼 로봇이 분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인류를 유지하는 자연 생리 현상인 임신과 출산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33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교수 타이틀은 내려놓지만, 퇴임 후에도 지역 의료 발전에 위해 로컬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역할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정년은 규정돼 있지만, 생명을 향한 그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근무 마지막 날에도 수술 2건을 했으며, 제 손을 거쳐 간 1만여명의 아이가 이제는 사회의 든든한 일원이 됐을 것”이라며 “그 아이들이 다시 안심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장성군산림조합,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2025년도 결산 승인...비상임 이사·감사 선출도

장성군산림조합(조합장 설재경)은 최근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임 임원(이·감사) 선출과 배당을 포함한 2025년도 결산 등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장성군산림조합이 전남 22개 조합 중 당기순위의 1등을 달성하며 전국 산림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상호금융 부분의 성장대상, 건전경영대상 수상과 함께 설계정 조합장의 산림조합중앙회 대의원 당선 등을 축하, 우수조합원에 대한 표창 등이 진행됐다.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 상 최고배당율인 5.1%의 출자배당과 그 외에도 이용고배당 1억700만원, 사업준비금 배당 1억원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기로 의결했다.

설재경 조합장은 “지난해 성과는 우리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조합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국 최고의 산림조합이 되도록 전임직원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임이사에는 김남수(읍), 김성욱(읍), 문병우(서산), 박경연(동화), 방동혁(북하), 조광철(북일), 안숙자(여, 삼서)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비상임감사는 투표를 통해 시기열(읍), 이연기(읍) 후보자가 당선됐다. 정성=이형범 기자

전남스마트쉼센터, 건강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앞장’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 과의존’ 선제 대응

전남도가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남스마트쉼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협력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5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인력은 도민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일상 속 건강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센터 내방 상담 등이다.

예방 교육 강사는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도내 교육 수요 기관을 방문해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남스마트쉼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협력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5명을 새로 위촉했다.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과 올바른 이용 습관을 안내하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방문 상담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가정·학교 등에서 전

문적·심층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상담 신청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1599-0075)를 통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과의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인사

광주시 ◇3급 승진 △시민소통과 황인재 △총무과 소진호

◇4급 승진 △기후대기정책과 김영규 △미래산업총괄과 박용범 △경제정책과 장안숙 △군공환경건설단 김경수 △도로과 유충석

◇5급 승진 △신신력총괄과 김영하 △인권평화과 김혜숙 △인사정책과 심현석 △노동안전지정정책과 장종근 △안전정책관 송여준 △대중교통과 박우성 △에너지산업과 박은수 △농업동물정책과 박자윤 △공공보건의료과 정영훈 △도시계획과

김영주 △도시공원과 유은열 △회계과 장제식 △토지정보과 이수진 △시립미술관 홍윤리 △총무과 박혜진

광주교점 ◇3급 승진 △총무과 장 최성규

◇5급 승진 △박종범 △우덕수

광주지점 ◇3급 승진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5급 승진 △김대현 △김윤미 △순천지청 수사과장 박철홍

◇전보 △사무국장 정연익 △총무과장 양미정 △집행과장 양동현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상인

담양군, ‘용면꿈미르센터’ 준공식 열려

담양군은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으로 ‘용면꿈미르센터’를 조성, 최근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와 장명영 군의회 의장, 박종원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입해 용면꿈미르센터와 용어울림마당,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문을 연 용면꿈미르센터는 면사무소 옆 기존복지회관 자리에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박정렬 기자 holub@



담양군은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으로 ‘용면꿈미르센터’를 조성, 최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담양군

게시판

알림 △일기정정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 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월 15일)

48년생 모임을 주도할 때 따르는 사람이 많다
60년생 기대에 못 미쳐도 나름 성과는 있다
72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
84년생 사업을 유지하며 확신을 가지 마라
96년생 금전 운용이 걱정된다

51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깝다
63년생 아랫사람과 이익을 나누는 날
75년생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87년생 부동산 거래에 좋은 결과가 있다
99년생 연행을 분별하라

54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을 능히 제압하는 법
66년생 너무나 좋은 운이 귀하를 명멸고 있다
78년생 준비해 온 것을 실용할 수 있는 기회
90년생 기회 놓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하라

57년생 자녀로 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69년생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다
8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하라
93년생 이익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49년생 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라
61년생 정직한 마음을 지키면 귀인이 돕는다
73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없다
85년생 학위 취득하려 국외로 나갈 운
97년생 뜻하지 않던 돈이 생긴다

52년생 사심 없이 일어난 사고로 판단하라
64년생 모든 주변사람이 귀하의 빛이 된다
76년생 일에 있어 성급하게 나아가지 마라
88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지인들한테 돈쓰는 날
67년생 여러곳에 가서 말을 많이 한다
79년생 지인이 권하는 투자는 금물
91년생 아직도 무엇을 찾고 있는가

58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70년생 거래처 도움을 받게 된다
82년생 요행수는 절대 금물
94년생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라
62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형태다
74년생 협력자가 여기저기 모여든다
86년생 함께 할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
98년생 옆 사람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53년생 위험하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
65년생 시기적으로 여행하기에 좋지 않다
77년생 제3자 이야기로 부부 불화가 시작된다
89년생 친구 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라

56년생 지금까지 미뤄졌던 계약 이뤄진다
68년생 친신과도 끝내 목적을 달성하는 날
80년생 이리저도 지리지도 못해 애매하다
92년생 인제나처럼 주변에 활기를 줘라

59년생 돈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71년생 귀하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
83년생 인복이 있어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95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겠다